

# 진안에서 찾은 가야, 그리고 구리고을

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대량리 제동유적 조사성과 전시

진안군(군수 이항로)이 오늘부터 진안의 가야문화유산과 대량리 제동유적 조사성과를 보여주는 특별기획전 '진안에서 찾은 가야, 그리고 구리고을'을 진안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진안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진안 황산리 고분군과 와정유적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토기를 비롯하여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대량리 제동유적의 조사성과와 수습유물 등을 선보인다.



진안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 (진안 황산리 고분군 출토유물)

있던 지역으로, 예로부터 구리고을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이 지역에 위치한 대량리 제동유적은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동향소(銅鄕所)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볼 수 있다. 유적의 운영시기는 고려시대로 판단되나, 삼국시대 토기가 일부 수습됨에 따라 고려시대 이전부터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전시는 18일부터 21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되는 진안홍삼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홍삼축제 기간 중인 20일과 21일에는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57호 진안고원형 옹기장 보유자인 이현배 옹기장의 가야토기

만들기 체험이 박물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이번 전시를 통해 가야문화권 서북단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진안 가야문화의 단면을 느껴보고, 우리나라 구리제련과 청동유물 생산 역사 규명에 크게 주목되고 있는 대량리 제동유적의 조사성과를 공유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는 내년 1월 20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전시에 대한 문의는 진안역사박물관(063-430-8085)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난달 21일부터 정읍시립미술관에서 기획전시 중인 '정읍을 들여다보다' 기획전.

## 정읍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정읍을 들여다보다' 연장 운영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달 21일부터 정읍시립미술관에서 기획전시 중인 '정읍을 들여다보다' 기획전시 11월 4일까지 연장해 전시한다.

시는 당초 이달 14일까지 전시 예정이었으나 가을 축제와 관광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정읍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연장을 결정했다.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정읍을 들여다보다' 기획전은 전라권의 중견 작가 12명이

정읍 태산선비문화권을 사전에 답사하고 작가들의 시선으로 정읍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번 기획전시는 정읍 태산선비문화권인 무성서원, 김평관 고택, 태인 향교, 피향정 등의 정읍의 풍경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읍의 다양한 축제와 내장산을 찾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시립미술관을 찾아 한자리에서 정읍을 보여주는 기획전시를

관람하며 우리 지역의 태산선비문화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입장이며, 일반 시민들을 위한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뒷마당 상상버스에서 '사시사철 캔버스'도 운영한다. 자세한 정보는 정읍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청소년들의 열기의 도가니 속에 '풍덩'

정읍 메이플스타 오디션 본선 진출자 21명 최종 확정

지금 정읍시는 Free(젊음의 자유)와 Fervo(젊음의 열정), Challenge(꿈을 향한 도전)라는 주제로 올해 두 번째를 맞는 메이플스타 오디션 페스티벌 열기로 용광로 같이 뜨겁다.

전국 5대광역도시 순회 예심을 통해 1차 선발전 300팀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정읍시청소년수련관에서 치러진 2차 예심에서는 8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참가신청자 기준) 속에 본선 진출자 21명이 최종 확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명, 부산 1명, 정읍 2명, 일본 3명, 중국 1명이다.

이번 오디션은 전국에서 참가 신청한 인원이 1,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청소년들의 관심이 뜨거웠으며 특히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300여명이 신청할 정도로 호응이 대단했다.

본선 진출 팀들은 3박4일간의 전문가 합숙트레이닝으로 더욱 역량을 키우게 되고 제29회 정읍시문화제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 6시 정읍시공원 특설무대에서는 새로운 메이플스타가 탄생하는 최종 오디션이 열린다.

우승자인 메이플스타(대상)에는 상금 300만원의 시상금과 함께 디지털 싱글앨범 제작, 방송사 음악프로그램과 축제 축하공연 출연 기회 제공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또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시상금이, 장려상과 인기상 각3명에게는 소정의 시



상금이나 상품권이 수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정읍시가 처음으로 "재능과 꿈 그리고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을 갖춘 청소년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 미래 성장 가능성을 넓혀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개최된 메이플스타 오디션은 전국에서 5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어 21세기 오디션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앞으로도 메이플스타 오디션 프로그램은 K-POP을 선도할 전국의 청소년들(19세~24세)에게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신림초등학교, 고인돌박물관에 선사 향토유물 52점 기증

조갯날돌도끼 · 청자발 · 청화백자호 등

고창군 신림초등학교가 개교 이후 인근 주민들이 기증하여 소장해오던 문화재 52점을 고창고인돌박물관에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림초등학교에서 고인돌박물관에 기증한 자료는 선사시대 유물인 '조갯날돌도끼' 1점, 단경호·광구병 등 삼국시대 유물 2점과 청자발 등 고려시대 1점, 청화백자호 등 조선시대 자기 8점, 민속자료 40여점 등 총 52점에 달한다. 고창의 유구한 역사와 대부분이 문화재 유존지역인 고창에는 개인소장자이거나 일선 학교 등에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는 인근 주민들이 여러 이유로 입수한 자료를 학교 선생님들에게 문의하고 교육기관인 학교에 교육용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신림초등학교에서도 소장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던 문화재들을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유물의 전문적인 보존시설을 갖춘 고인돌박물관에 영구기탁하기로 결정하고 유물을 고인돌박물관에 이관하였다.

신림초등학교 홍정임 교장은 "학교에서 유물을 소규모로 관리하기 보다는 많은 분들이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